

# 영어능력에 따른 영어매개 전공과목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연구 : 간호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정은영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English Medium Instruction subjects According to English Proficiency : Focusing on Nursing Department students

Eun-Young Jeo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교과목에 대한 태도, 만족도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결과, 학생들은 EMI 수업이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수업시간외 동료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EMI수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EMI수업 진행에 적합한 교육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주제어** : 태도, 만족도, 학습자 요구, 간호학과 학생, 영어매개 전공교과목 강의

**Abstract** Purpose: To analyze students' attitudes toward English-Medium Instruction (EMI) classes for nursing students. Methods: From January 23 to January 30, 2020,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web-based survey program on student attitudes,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EMI classes. 216 responded to the survey, giving a response rate of 63.7%. Results: The item with the highest score on the attitude toward EMI lectures was 'EMI classes will be of great help to student's future'. The item 'I will try to speak English with my classmates outside of the EMI class if possible' showed the lowest score. Students answered that they need an appropriat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 smooth operation of EMI classes, fewer students per class and support for group studies

**Key Words** : Attitude, Satisfaction, Learners' needs, Nursing students, English-medium instruction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대학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일정 수준이상의 영어실력을 졸업 요건 중 하나로 요구하거나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유명일간지 등이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전체 강의교과목 중 영어진행 강의의 비율을 선정함으로써 많은 대학이 영어강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전공영어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 EMI)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에서 대학 학위과정 이상의 고등교육에서 영어를 사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EMI는 영어습득이 목표인 콘텐츠 및 언어통합학습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Wonkwang University in 2021  
(이 논문은 2021년도 원광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Corresponding Author : Eun-Young Jeong(pionaorai65@wku.ac.kr)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CLIL) 과 달리 학문적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비영어권 국가의 대학이 '국제화'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1]. EMI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전공지식 뿐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에 동시에 노출되어 이를 통해 전공지식 습득 및 언어적 성과(말하기, 듣기 등 언어 기술)와 비언어적 성과(심리적, 정서적 느낌)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다[2,3]. 그러나 교양 교과목은 물론 전공교과목까지 영어로 개설하는 학교가 증가하자 영어강의에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영어 진행교과목이 아닌 한국어 진행교과목을 선호함에 따라 수강신청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4]. 또한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교수는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 방학동안 영어학원을 다니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자칫 영어실력 지상주의에 따라 대학이 영어학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5].

EMI는 그 목적에 따라 일반목적영어(English for General Purpose, EGP)와 특수목적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 ESP)로 구분 된다. 간호학과에서 전공을 영어로 강의하는 것은 특정집단에서 통용되는 특수목적의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로 ESP에 해당한다. 또한 ESP는 학문적 목적(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과 직업적 목적(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s, EOP)등으로 분류하는데 간호학 공부를 위하여 책을 읽는 등의 목적이라면 EAP로 구분되나 간호사 및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EOP로 구분한다[6]. 또 다른 분류로는 보건의료인이 의료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경우와 환자를 대상으로 의학용어와 일상 영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의료 또는 간호학적 설명을 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7]. 간호사의 영어 소통역량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환자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가정 및 이주노동자 등의 활발한 국내 유입으로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의료관광 진흥 정책에 따라 연평균 30.5%의 증가율을 보이는 외국인 환자유치는[8] 문화간 의사소통역량이 외국인환자 간호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환자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으나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및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리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즉,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보건 의료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하는 간호사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사용과 별도로 많은 간호학 관련 논문이 영어로 출간되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제 영어는 간호학 연구의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기본언어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또는 간호학생에게 영어는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0]. 이러한 간호현장의 변화로 인해 간호사의 영어 능력은 간호대학에 다니면서 받은 교육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간호대학의 영어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11].

우리나라의 경우 ESP연구는 2000년 이후 보고되기 시작하였고 간호학에서의 ESP연구는 거의 없으며 의학분야에서 1편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간호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과목에 대한 요구분석을 한 결과, 77%의 학생들이 일반목적영어보다 간호현장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영어 교과목의 개설을 더 많이 요구하였다[13]. 하지만 대부분의 간호학과는 특수목적영어 보다는 토익 등 취업 관련 영어교과목이나 일반영어 회화교과목을 더 많이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학과 학생은 영어에 대한 흥미가 그리 높지 않으나(82%가 보통 이하로 응답) 대부분의 학생이 영어가 자신의 직업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토익 등 취업 관련 영어보다 간호 영어 등 간호 관련 영어교과목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13] 원서를 이용한 전공교과목 강의 또는 간호학전공 외국인교수가 영어로 진행하는 간호학전공 교과목의 개설은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에 소재한 A대학교 간호학과는 '국제 간호교육과정'이라는 전공심화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학과 학생 모두가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 과정에 의거 간호학전공 외국인교수 3~4명이 해부학 등 기초의학 교과목과 간호학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교수에 의해 진행되는 전공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성인, 아동 및 모성간호학 등)은 영어 원서를 교과서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A대학교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10년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졸업생으로부터 간호현

장 적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이 계속되는 등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EMI강의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된 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MI강의가 진행되는 A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EMI 수업에 대한 학생의 태도 등을 분석하여 향후 교과과정 개편 및 간호학 전공 영어수업 운영방식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자

2020년 1월 현재 A대학교 간호학과에서 1개 과목 이상의 EMI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휴학생은 제외하였다.

### 2.2 자료 수집 방법

2020년 1월 23일~1월 30일까지 A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EMI 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태도, 만족도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문을 웹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해당 교과목 수강생의 학기말 강의평가 자료 중 일부이며 개인 식별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2차 데이터로 IRB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되었다.

### 2.3 설문 구성

웹기반의 설문은 EMI 수업에 대한 태도 13문항, 개선방안 4문항, 일반사항 7문항 등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MI 수업에 대한 태도는 전공영어수업에 대한 호감도, 두려움과 어려움, 외국인 교수에 대한 느낌, 효과성 여부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5'는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1'은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EMI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최진숙(2012)이 개발한 '대학생들의 영어 강의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12]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2이었다. EMI교과목에 대한 개선사항은 EMI 수강 시 어려운 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사항은 입학 당시 토익점수, 재학 중 가장 높았던 토익점수, 하루 평균 일반영어공부 시간, 영어권나라 체류여부 및 기간 등으로 구성 되었다. 설문대상자는 휴학생 제외

총 339명 이었고 216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여 63.7%의 응답률을 보였다.

##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검사인 Cronbach's alpha 테스트를 이용하였다. 토익점수에 따른 EMI수업에 대한 태도 등은 X<sup>2</sup> test, ANOVA등의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재학 중 가장 높았던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상(800점 이상, 62명, 28.7%), 중(600점~800점, 69명, 31.9%), 하(600점미만, 85명, 39.4%)의 세 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3.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등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1.9세이었고, 여학생 197명(91.2%), 남학생 19명(8.8%)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65명(30.1%), 2학년 53명(24.5%), 3학년과 4학년이 각각 49명(22.7%)이었다. 입학 당시 토익성적은 104명(48.1%)의 학생이 600점미만 이었으며, 토익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36명(16.7%)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학 중 가장 높았던 토익점수는 800점 이상이 62명(28.7%) 이었고 600점미만은 85명(39.4%)이었다.

144명(66.7%)의 학생이 영어권나라 체류 경험이 없었던 반면, 26명(12.0%)의 학생은 6개월 이상 해외 거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 하였다. 영어권 나라 체류경험 여부에 따라 재학 중 가장 높은 토익점수에 따른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2). Table 1과 같이 토익점수 800점 이상에 속하는 학생 중 43명(69.4%)은 입학 당시 토익점수가 600점 이상이었으나, 하위그룹에서는 600점 이상은 한 명도 없었고 토익시험을 본 적이 없는 학생이 18명(21.2%)으로 분석되었다.

### 3.2 EMI 강의교과목에 대한 태도

EMI 강의교과목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 12개 중 8개 문항의 평균이 5점 만점에 3.00 이상을 보여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 이상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높은 평점을 보인 설문은 'EMI 수업이 학생의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3.64 \pm 1.05$ ) 이었다. 이와 달리 교과 외 시간에 학우들과 영어로 대화 하려는 노력은 가장 낮은 반응( $1.99 \pm 0.93$ )을 보였으나 토익점수 그룹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p=.243$ ). 또한 학생들은 간호학과에서 전공 교과목이 외국인 교수에 의해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보통 이상( $3.37 \pm 1.05$ )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원어민교수에 대한 느낌 또한 보통이상( $3.30 \pm 0.95$ )으로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EMI 수업에 대하여 중간 이상( $2.91 \pm 1.09$ )으로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EMI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이상( $3.32 \pm 1.15$ )으로 나타났다. Table 2와 같이 EMI 강의교과목에 대한 태도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토익점수가 높은 군에 속하는 학생이 낮은 군에 속한 학생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그룹 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로 분석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  | Total (n,%)     | TOEIC score |           |           | $\chi^2$ or F (p) |                |
|--|-----------------|-------------|-----------|-----------|-------------------|----------------|
|  |                 | Top         | Middle    | Bottom    |                   |                |
| Total  | 216 (100.0)     | 62 (28.7)   | 69 (31.9) | 85 (39.4) |                   |                |
| Age (mean)   | 21.9            | 22.8        | 22.2      | 21.0      | 25.460* ((.001)   |                |
| Gender   | Male            | 19 (8.8)    | 7(11.3)   | 9(13.0)   | 3(3.5)            | 4.971 (.083)   |
|  | Female          | 197(91.2)   | 55(88.7)  | 60(87.0)  | 82(96.5)          |                |
| Grade  | 1 <sup>st</sup> | 65(30.1)    | 8(12.9)   | 14(20.3)  | 43(50.6)          | 76.740 ((.001) |
|  | 2 <sup>nd</sup> | 53(24.5)    | 6(9.7)    | 17(24.6)  | 30(35.3)          |                |
|  | 3 <sup>rd</sup> | 49(22.7)    | 16(25.8)  | 24(34.8)  | 9(10.6)           |                |
|  | 4 <sup>th</sup> | 49(22.7)    | 32(51.6)  | 14(20.3)  | 3(3.5)            |                |
| TOEIC score at the time of admission                 | No test         | 36(16.7)    | 8(12.9)   | 10(14.5)  | 18(21.2)          | 85.462 ((.001) |
|  | Lower 600       | 104(48.1)   | 11(17.7)  | 26(37.7)  | 67(78.8)          |                |
|  | over 600        | 76(35.2)    | 43(69.4)  | 33(47.8)  | -                 |                |
| length of stay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month) | No stay         | 144(66.7)   | 32(51.6)  | 46(66.7)  | 66(77.6)          | 12.924 (.012)  |
|  | Lower 6M        | 46(21.3)    | 17(27.4)  | 17(24.6)  | 12(14.1)          |                |
|  | Over 6M         | 26(12.0)    | 13(21.0)  | 6(8.7)    | 7(8.2)            |                |

\*F value

Table 2. Attitude toward EMI

| Questions   | total (n=216) | TOEIC score |               |               | F-value (p)     |
|---|---------------|-------------|---------------|---------------|-----------------|
|   |               | Top (n=62)  | Middle (n=69) | Bottom (n=85) |                 |
| I like to study the nursing instruction carried out by foreign faculty  | 3.37±1.05     | 3.87±0.95   | 3.39±0.90     | 2.99±1.10     | 14.163** (.000) |
| I am afraid of taking EMI classes(reverse coding)   | 2.91±1.09     | 3.74±0.97   | 2.81±0.93     | 2.38±0.93     | 38.317** (.000) |
| I feel good about the EMI classes taught by foreign faculty.  | 3.30±0.95     | 3.63±0.98   | 3.30±0.93     | 3.06±0.89     | 6.755** (.001)  |
| I try to talk in English with my classmates outside the EMI courses.  | 1.99±0.93     | 2.13±0.97   | 2.01±0.92     | 1.87±0.91     | 1.423 (.243)    |
| I think my English skills have improved after taking an EMI nursing classes.                                      | 3.51±1.08     | 4.02±0.88   | 3.61±1.00     | 3.06±1.10     | 6.684** (.000)  |
| I think I have to study English separately for EMI class.   | 3.53±1.06     | 3.21±1.09   | 3.59±0.99     | 3.71±1.07     | 4.211* (.016)   |
| I think that EMI nursing classes will enable be to acquire enough knowledge about my major.                       | 3.06±1.14     | 3.53±1.14   | 2.99±1.06     | 2.76±1.09     | 9.004** (.000)  |
| I am satisfied with the teaching of EMI nursing courses at university.  | 3.32±1.15     | 3.87±1.08   | 3.38±1.10     | 2.88±1.06     | 15.168** (.000) |
| I am more satisfied with the EMI nursing courses than with the Korean major.                                      | 2.66±1.12     | 3.06±1.28   | 2.70±1.03     | 2.33±0.97     | 8.279** (.000)  |
| I believe that EMI nursing courses will be very helpful for the future career                                     | 3.64±1.05     | 4.21±0.75   | 3.61±1.05     | 3.26±1.06     | 17.068** (.000) |
| I think the EMI course is effective because it allows me to learn English along with other major-related subjects | 3.21±1.16     | 3.76±1.14   | 3.12±1.08     | 2.89±1.11     | 11.244** (.000) |
| I think that EMI classes are inefficient because I learn both English and major-related subjects                  | 2.69±1.12     | 2.11±1.07   | 2.68±1.06     | 3.11±1.01     | 16.141** (.000) |

\* p<.01, \*\*p<.001

### 3.3 EMI 강의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 등

EMI 수업 외 일반 영어공부 시간은 하루 1시간미만이 18명(54.6%)이었고,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은 25명(11.6%)으로 나타났다. 토익점수 상위그룹에 해당하는 학생 중 12명 (19.4%)이 하루 3시간 이상 일반 영어공부를 하는 반면, 하위그룹 학생은 4명(4.7%)으로 응답하였다(p=.024). EMI 교과목 공부에 소요되는 학습시간은 한국어 전공교과목보다 2배~ 3배의 시간이 더 요구된다는 학생이 제일 많은 82명(38.0%)이었고 비슷한 시간이 소요 된다는 학생은 44명(20.4%)이었다. 토익점수 그룹별로 살펴보면, 토익점수가 800점 이상인 학생 중 5명(8.1%), 600점 이하 학생 중 21명(24.7%)이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p<.001).

Table 3과 같이 EMI 수업 시 강의내용의 이해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74명(34.3%)의 학생이 60%~80% 정도 이해하고 있었으며, 80% 이상 57명(26.4%), 40%~60% 53명(24.5%)의 순으로 답하였다. 토익점수 그룹별로 살펴보면 800점 이상 학생의 26명(41.9%)이 EMI 수업의 80% 이상을 이해하는 반면, 600점미만 학생은 15명(17.6%) 이라고 응답하였다(p=.019)

**Table 3. Understanding of EMI lecture**

| Questions  | Total<br>l(n,<br>n=216) | TOEIC score (n,%) |                  |                  | χ <sup>2</sup> or F<br>(p) |                    |
|--|-------------------------|-------------------|------------------|------------------|----------------------------|--------------------|
|  |                         | Top<br>(n=62)     | Middle<br>(n=69) | Bottom<br>(n=85) |                            |                    |
| English study hours other than EMI                   | Below 1 hour            | 118(54.6)         | 26(41.9)         | 42(60.9)         | 50(58.8)                   | 11.267*<br>(.024)  |
|  | 1-2 hours               | 73(33.8)          | 24(38.7)         | 18(26.1)         | 31(36.5)                   |                    |
|  | above 3 hours           | 25(11.6)          | 12(19.4)         | 9(13.0)          | 4(4.7)                     |                    |
| EMI study hours compared with Korean majors lectures | Above 3 times           | 35(16.2)          | 5(8.1)           | 9(13.0)          | 21(24.7)                   | 28.067**<br>(.000) |
|  | 2-3 times               | 82(38.0)          | 14(22.6)         | 27(39.1)         | 41(48.2)                   |                    |
|  | 1.5-2 times             | 48(22.2)          | 21(33.9)         | 15(21.7)         | 12(14.1)                   |                    |
|  | Similar                 | 44(20.4)          | 18(29.0)         | 16(23.2)         | 10(11.8)                   |                    |
|  | less time               | 7(3.2)            | 4(6.5)           | 2(2.9)           | 1(1.2)                     |                    |
| Understanding Of EMI class content                   | Above 80%               | 57(26.4)          | 26(41.9)         | 16(23.2)         | 15(17.6)                   | 18.349*<br>(.019)  |
|  | 60%~80%                 | 74(34.3)          | 22(35.5)         | 24(34.8)         | 28(32.9)                   |                    |
|  | 40%~60%                 | 53(24.5)          | 11(17.7)         | 19(27.5)         | 23(27.1)                   |                    |
|  | 20%~40%                 | 22(10.2)          | 3(4.8)           | 6(8.7)           | 13(15.3)                   |                    |
|  | Below 20%               | 10(4.6)           | -                | 4(5.8)           | 6(7.1)                     |                    |

\*p<.05, \*\*p<.01, \*\*\*p<.001

**Table 4. Future directions for EMI nursing courses**

| Items   | Frequency<br>(n,%)  | TOEIC score (n,%) |                  |                  |           |
|---|---|-------------------|------------------|------------------|-----------|
|   |   | Top<br>(n=62)     | Middle<br>(n=69) | Bottom<br>(n=85) |           |
| Difficulties in taking EMI classes (Multiple responses) | Total   | 210(100.0)        | 60(28.6)         | 66(31.4)         | 84(40.0)  |
|   | Inadequate student's ability to take EMI                          | 170(81.0)         | 37(17.6)         | 55(26.2)         | 78 (37.1) |
|   | Lack of adequate textbooks  | 33(15.7)          | 8(3.8)           | 11(5.2)          | 14 (6.7)  |
|   | Inadequate conduction of EMI by foreign professors                | 49(23.3)          | 17(8.1)          | 18(8.6)          | 14(6.7)   |
|   | Lack of English proficiency of professors                         | 14(6.7)           | 5(2.4)           | 5(2.4)           | 4(1.9)    |
|   | Students' lack of motivation                                      | 92(43.8)          | 33(15.7)         | 25(11.9)         | 34(16.2)  |
| Expansion of EMI classes                                | To be reduced   | 68(31.5)          | 13(2.0)          | 14(20.3)         | 41(48.2)  |
|   | To stay as it is currently  | 130(60.2)         | 41(66.1)         | 48(69.6)         | 41(48.2)  |
|   | To be increased   | 18(8.3)           | 8(12.9)          | 7(10.1)          | 3(3.5)    |
| Support for taking EMI classes (Multiple responses)     | Total   | 210(100.0)        | 60(28.6)         | 66(31.3)         | 84(39.8)  |
|   | Workshop on how to learn EMI                                      | 44(8.0)           | 17(8.1)          | 14(6.6)          | 13(6.2)   |
|   | Provision of EMI study guidebooks                                 | 90(16.5)          | 23(10.9)         | 28(3.3)          | 39(18.5)  |
|   | Provision of an educational environment suitable for EMI learning | 134(24.5)         | 38(18.0)         | 43(20.4)         | 53(25.1)  |
|   | Reduced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 93(17.0)          | 28(13.3)         | 27(12.8)         | 38(18.0)  |
|   | Increased EMI class hours   | 25(4.6)           | 9(4.3)           | 8(3.8)           | 8(3.8)    |
|   | Provision of individual clinics                                   | 70(12.8)          | 24(11.4)         | 18(8.5)          | 28(13.3)  |
|   | Support for group studies   | 91(16.6)          | 27(12.8)         | 29(13.7)         | 35(16.6)  |

### 3.4 EMI 강의 교과목의 개선점 등

Table 4에서 보듯이 EMI 수업의 저해요인에 대한 복수응답에서 학생들은 학생 본인의 영어 학습능력 부족 (170명, 81.0%), 학생의 동기부족(92명, 43.8%) 및 원어민 교수의 EMI 강의 운영 방법 부족 (49명, 23.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EMI 강의 교과목의 확대여부에 대하여 130명(60.2%)의 학생이 현 상태 유지를 원하였다. 토익점수 그룹별로 살펴보면 토익점수 600점 미만인 학생은 EMI수업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1명(48.2%)이었으나, 800점 이상인 경우는 13명(21.0%)으로 나타났다. 또한 EMI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한 복수 응답에서 EMI수업에 적합한 교육환경이 마련 되어야하고(134명, 24.5%), 분반 당 학생 수가 축소되어야하며(93명, 17.0%) 그룹스터디 지원(91명, 16.6%)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4. 결론

A대학교 간호학과의 EMI수업은 해당 대학교의 타 학과 뿐 아니라 타 간호대학 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전국 200여개의 간호대학 중 유일하게 EMI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A대학교 간호학과의 EMI 수업이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등 EMI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응답률은 63.7%이었으며 응답학생은 학년별로 골고루 분포하였다. 대상자들은 입학 당시 토익점수가 없거나 (36명, 16.7%) 600점 미만인 학생(104명, 48.1%)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2019년 한국 TOEIC 위원회 가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 토익점수 673점보다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다[15]. 입학 당시 토익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재학 중 취득한 최고 토익점수는 800점 이상인 학생이 62명 (28.7%)이었고, 600점 이상까지 포함하면 131명 (60.6%)이 전국 토익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토익 800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수가 증가하여 800점 이상 그룹 62명 중 4학년이 32명(51.6%)을 차지하였다. 이는 EMI 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노출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취업 준비과정에서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토익점수 800점 이상 학생 중 절반(32명, 51.6%)에 해당하는 학생은 영어권 국가 거주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토익 고득점과 영어권나라 거주경험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EMI강의와 외국인교수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EMI 교과목이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다고(2.91± 1.09) 응답하였고 이는 기존 연구결과(2.79~3.11)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6].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토익점수가 낮은 그룹(2.38±0.93)이 높은 그룹(3.74±0.97)에 비하여 학생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느끼는 불안은 외국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언어학습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언어습득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습성취도 또한 좋지 않음을 감안 시[17,18] 효과적인 EMI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심리적으로 보다 편안하게 EMI 수업에 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MI수업시간 외 친구들과 영어로 의사소통 하려는 의지(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English, WTC)는 토익점수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설문조항 중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9±0.93, p=.243). 영어학습자들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4 가지 영역 중 말하기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여 주며, 이는 영어로 말할 때 동료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9]. 또한 WTC는 강의실 내부 보다 강의실 밖에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9] 이는 의사소통에 대한 걱정, 불안 및 의사소통기술[20], 동기부여 [21], 국제 언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태도[22] 및 사회문화적요인 [23,24] 등 여러 복잡한 요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WTC는 강의실 내에서는 교수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지만 강의실 밖에서는 학습자 의지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즉, 토익 점수와 상관없이 강의실 밖에서 학생들이 영어로 자발적으로 의사소통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EMI과정을 통해 전공 지식 뿐 아니라 일반 영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강의시간외에 자유롭게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지지적환경을 제공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57명(26.4%)이 강의 내용의 80% 이상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27.4%의 학생이 강의내용의 80% 이상을 이해하거나[4] 52.7%의 학생이 70%이상을 이해한다고[25] 응답한 기존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나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EMI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1/4 가량의 학생만이 80%를 이해하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EMI 강의교과목이 수업내용 전달 및 이해도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 자신의 영어실력이 부족하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점을 EMI강의 수강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EMI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거나[25] 학생의 영어능력 부족이 EMI수업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응답한 기존 연구결과와 같은 결론이다[26,27]. 즉, EMI 강의교과목을 이해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EMI수업에 대한 불안도가 높고 EMI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EMI 수업이 힘들어 진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EMI 진행 교과목이 보다 원활히 운영되기 위한 지원 사항으로 EMI 강의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 분반 당 학생 수 축소, 그룹스터디 지원 및 학습방법에 대한 가이드 북 발간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EMI 수업 시 학생끼리 또는 교수자와 학생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해 계단식 강의실이 아닌 책걸상의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한 환경을 원하였다. 또한 분반 당 학생 수의 제한은 현재 A대학교 간호학과 에서는 한 강좌 당 40~50명까지 EMI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20명 내외의 소규모 강의를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소규모 강의를 통해 이해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추가적 설명이나 피드백을 원하지만 많은 인원이 수강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토의 점수에 따른 그룹별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응답이 다소 상이하였다. 즉, 토의 800점 이상인 그룹은 분반 당 학생 수를 줄일 것을 원하였고, 중간그룹은 스터디그룹 지원을, 600점 이하 그룹은 EMI 수업 관련 가이드북 발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개별적 영어 학습능력에 따라 지원방법을 달리 적용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EMI 수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80%의 학생이 EMI 수업의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현실에서는 개인이 준비하여 EMI 수업을 학생 자신이 만족할 만큼 내실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본 연구는 간호학에서의 EMI수업이 전공지식은 물론 영어도 동시 습득 하게 하고, 어려움은 있지만 많은 학생이 EMI 수업을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확대하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어 앞으로 간호학 EMI 수업이 성공적으로 정착, 유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정 언어에 대하여 능숙할수록, 즉 해당 언어에 대한 능력이 높을수록 그 언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데[26] 이는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토익점수 800점 이상의 학생들이 EMI에 대한 설문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간호학에서 EMI 교육은 국제화되고 다변화 되는 흐름 속에 놓인 한국 간호대학의 영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 대학영어와 달리 EMI 강의는 간호학이라는 전공과목에서의 특성을 갖춤으로써 간호학 학문분야 뿐 아니라 간호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EMI과목이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학생들의 세분화된 영어수준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강의가 설계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강의가 영어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다. 또한 같은 학과 소속이라도 학생들의 영어실력은 차이가 있으며 수업에서 사용되는 영어 어휘의 차이는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EMI 수업을 영어 수업 시간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영어능력에 따른 수준별 분반 수업을 하거나 한국어 병행 사용이 가능한 교수진 확보 등으로 학생의 영어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강의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교수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EMI 교과목 수업 시 강의자가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업 운영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연습과 복습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하며 자발적인 그룹스터디 활동을 격려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

는 등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그룹스터디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내용 뿐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EMI 강의교과목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EMI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자격 이수 증서 등을 수여한다면 학생이 보다 진지하게 EMI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영어강의에 대한 연구는 교양영어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25-27] 전공교과목에 대해서는 최근 공학분야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28,29] 간호학분야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연구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서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기반이 열악한 지방소재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간호학에서 영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전공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태도 등 기본적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점과 향후 EMI교과목을 개설하려는 경우 기본 적인 윤곽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강의평가 항목 중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개인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 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 1개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 연구결과의 일반화하기 곤란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간호학 EMI 교과목에 대한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 방법들을 제시하는 한층 발전된 연구가 필요 하다.

## REFERENCES

- [1] E. Macaro, S. Curle, J. Pun, J. An & J. Dearden. (2018). A systematic review of English medium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Language Teaching*, 51(1), 36-76.
- [2] M. Y. Kim. (2017). A study on language anxiety, English proficiency and class satisfaction of English learners.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81, 27-58.
- [3] S. E. Cho & S. S. Hwang. (2013).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English lectures in university major courses and exploring future directions: focused on the perceptions and satisfaction surveys for differences in English proficiency. *Studies in Modern Grammar*, 71, 175-194.
- [4] K. H. Lee & J. Y. Hong. (2015). Study on the Situations and Learning Effect of English Medium Instruction at Korean Universities. *Local Education Management*, 18(1), 1-22.
- [5] A. Y. Lim, H. K. Kim, H. W. Jeong & S. M. Baek. (2011). *Information cannot be transmitted, mustard eating while crying...Problems in teaching English*. Kyunghyang news. (Onlin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1\\_041121014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1_04112101401)
- [6] B. E. Pranoto & S. Suprayogi. (2020). A Need Analysis of ESP for Physical Education Students in Indonesia. *Premise. Journal of English Education and Applied Linguistics*, 9(1), 94-110.
- [7] Y. L. Lu. (2018). What do nurses say about their English language needs for patient care and their ESP coursework: The case of Taiwanese nurs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50, 116-129.
- [8]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6b). *2015 Arrivals of Foreign Patients*, Seoul: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9] K. S. Kim, J. W. Ahn, J. A. Kim & H. J. Kim. (2014). A Comparison Study using Mixed Methods on Foreign Residents' Satisfaction with Korean Health C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4(1), 86-96.
- [10] R. Ribes & P. R. Ros. (2005). *Medical English*.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11] T. J. Starkey. (2013). The Critical Factors that Influence Faculty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Teaching English as Second Language Nursing Students. A grounded theory research study. *Nurse education today*, 35(5), 718-725.
- [12] J. H. Jeon. (2015). Studies o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English Teaching*, 70(5), 243-263.
- [13] H. S. Kim & Y. J. Park. (2019). Nursing students' needs analysis in English curriculum development at univers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23(1), 35-45.
- [14] J. S. Choi. (2012). A study of changes in attitudes towards English medium instruc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3), 137-155.
- [15] S. C. Hyeon. (2020). *TOEIC score increased by 53 points in 8 years... last year 686 points*. (Aju Business Daily) Retrieved from [https://www.ajunews.com/view/202004020900\\_48461](https://www.ajunews.com/view/202004020900_48461)



- [16] J. M. Nam. (2011). Correlational study on English learners' motivation, anxiety, WTC and their English achievement scores in native teachers' class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2), 139-160.
- [17] N. M. Lou & K. A. Noels. (2020). Breaking the vicious cycle of language anxiety: Growth language mindsets improve lower-competence ESL students' inter-cultural intera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61, 101847.
- [18] S. S. Y. Ching, D. Fong, L. W. Zhang, G. Y. Guan & K. Cheung. (2020). Perceptions of the English Use of College Transfer Nursing Students in a Non-English Speaking City: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2), 462.
- [19] J. S. Lee, K. Lee & J. C. Hsieh. (2019). Understanding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L2 between Korean and Taiwanese students. *Language Teaching Research*, 1-22.  
DOI : 10.1177/1362168819890825
- [20] A. C. Lahuerta. (2014). Factors affecting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a Spanish university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Studies*, 14(2), 39-55.
- [21] R. Matsuoka. (2004).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English among Japanese college students. In *Proceedings of the 9th Conference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pp. 165-176).
- [22] T. Yashima, L. Zenuk-Nishide & K. Shimizu. (2004). The influence of attitudes and affect on willingness to communicate and second language communication. *Language learning*, 54(1), 119-152.
- [23] R. Matsuoka, K. Matsumoto, G. Poole & M. Matsuoka. (2014).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English: The Serendipitous Effect of Oral Presentations. *Journal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18(1), 193-218.
- [24] W. P. Wen & R. Clément. (2003). A Chinese conceptualisation of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ESL.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16(1), 18-38.
- [25] H. J. Kim & S. B. Chang. (2013). A study of perceptions on university major subjects in English-mediated instruc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14(3), 259-282
- [26] S. Y. Hwang. (2013). Engineering majors' perception of EMI courses. *Modern English Education*, 14(3), 209-235
- [27] E. K. Maeng, H. Han, H. Y. Kim & S. W. Kim. (2011). Needs Analysis and Suggestions of EMI Instructors in Higher Education.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7(3), 269-301.
- [28] J. S. Choi.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English skills and Korean skills among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attitudes toward Englis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2), 27-46.
- [29] S. B. Kim. (1998). Difference in effectiveness between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An experimental study.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3(1), 87-99 .
- [30] H. G. Lee. (2012).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f practical English teaching by native English instructors. *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17(3), 45-68.
- [31] M. A. Ha. (2013). A study on the students' perceived quality of class and their learning attitudes in college English courses taught by native English-speaking and Korean professors.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2(2), 103-128.
- [32] B. H. Lee. (2010).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for an efficient EMI education of engineering major subject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3(6), 188-194.
- [33] Y. C. Chung. (2009). Teaching university major courses in English: the instructors' beliefs and perceptions.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27(3), 247-271.

정은영(Eun-Young Jeong)

[정회원]



- 2007년 : University of Sheffield (Master of Public Health)
- 2016년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간호학박사)
- 관심분야 : 체계적문헌고찰, 빅데이터, 간호인력, 가상현실
- E-mail : pionorai65@wku.ac.kr